

#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입례 / 목마른 사슴이 / 영광을 돌리세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 세상 모든 민족이	다같이
대표기도		김정민
*성경봉독	창 5:21-24	김준영
말씀	하나님과의 동행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주 나와 함께하시니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하지수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 헌금안내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 응답찬양

### 주 나와 함께하시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앞에 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어든 길 걸어갈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하시니  
나 두려움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주 나와 함께하시니  
부족함 없네, yeah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yeah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앞에 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 하나님과의 동행 (창 5:21-24)

21 에녹은 65세에 므두셀라를 낳았습니다. 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23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24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세상에서 사라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한국에서 꽤 유명하게 방영되었던 다큐 프로그램 중에 “동행”이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을 소박하면서 진솔하게 나눴던 좋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 방송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건 누군가의 지지와 격려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함께 가는 것, 동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끼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동행 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근데, 동행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시시콜콜한 일상을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이런 동행을 원하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앞으로 나와 동행 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동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 길은 꽃 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길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형통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며, 내 삶의 운전대를 그 분께 내어 드리는 헌신의 과정입니다.

**에녹 (Enoch)**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65세에 므두셀라 (Methuselah)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사실 그가 이 땅에서 한 일은 하나님과 동행한 일이 전부입니다. 그가 이처럼 동행만 하였는데, 그 결과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데려가셨습니다. 아담이 죄로 인해 죽은 지 57년만에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열심의 증거입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였을까요? 짧은 본문 속에 힌트가 있습니다. **첫째, 기억하라!** 입니다. 에녹은 아들의 이름(므두셀라)을 특별하게 짓습니다. 그 문자적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란 뜻인데, 그 속 뜻은 ‘네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실제로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에녹이 아들을 낳을 때 그는 하나님의 큰 심판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고 하루에도 몇 십번씩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과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제대로 목상한다면, 우리의 일상은 지금과는 굉장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매일 매일 했던 사람이 에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것이 그가 동행했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두번째 방법은 훈련이었습니다. **둘째, 훈련하라!** 에녹이란 이름의 뜻은 **헌신하다, 순종하다, 훈련받다**입니다. 그는 하루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훈련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헌신된 삶은 단순합니다. 그 결과 그는 평생동안 “동행”만 했을 정도로 단순하게 하나님만 향했습니다. 훈련은 힘들고, 반복되고, 하기 싫지만 그 열매는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에녹은 그 이름대로 **훈련된 자**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의 동행 비결은, 동행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셋째, 즐겨라!** 에녹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건이 훈련만 했다면 그는 결코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은 인간의 의지로만 가능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보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뻐했고, 이를 즐겼기에 오랜 시간 동행할 수 있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라는 말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오랫동안 동행하려면 동행 자체를 즐겨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여러 루트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분은 내 마음의 생각을 다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시 139:1-4) 내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고, 내 마음의 생각을 다 감찰하셔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쁨을 맛보면 더욱 그 기쁨을 누리고 싶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는 큰 기쁨 중 하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을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변치 않는 명제지만, 오직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십니다. (신 32:10, 시17:8, 신26:18, 시135:4, 사62:5, 고후11:1-15) 이런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들으면 정말로 날아갈 듯이 기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 **세상과 사람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생명이 코의 호흡에 달려있는 인생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때문, 동행하는 인생에도 폭풍우와 모진 풍파가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태풍의 눈 속에서 평강과 희락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세상이 별것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동행의 유익이자 기쁨입니다.

# 말씀산책

나는 젊었을 때, 하나님과의 동행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동행은 젊은 내게는 목표를 향해 가는 방식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은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인생 최고의 목표라고 감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힘이 있습니다. 휴식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때론 힘겨워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경험합니다. 삶의 성과는 오히려 동행을 즐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내가 애써서 얻은 결과보다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 떠나는 인생 여행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 모두를 초청합니다.

## 나눔을 위한 질문

1. ‘구원 이후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기다린다’는 말에 대해서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방법 중에서 내가 참고할 점은 무엇일까요?
3.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세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 파송찬양

###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

예배시간 : 매 주일 오후 1시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예배도중에는 이동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

4월 2일 (문답 : 4월 1일(토) 오후 2시, 교회)  
교육: 3월 18일(토) 오후 2시, ZOOM  
성찬식 (청년예배)

종려주일

다음 주일(4월 2일)은 종려주일로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및 성금요일 예배

새벽기도 : 4월 3일(월) ~ 7일(금) 오전 6:30, ZOOM  
성금요일 Arise 찬양 기도회 : 4월 7일 오후 8시, 본당  
고난주간 금식기도 : 온라인 sign-up - 교회웹사이트로 신청

귀납적 (Inductive) 성경공부

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저녁 6-8시  
첫 모임: 3/30/2023 목요일 6시  
장소: 교회 혹은 외부 장소  
본문: 룻기 (한국어로만 진행)  
신청방법: QR CODE



팀원 모집

미디어팀 - 청년부 예배 전 주보를 프린트 해주실 분 (문의: 안혜성)  
찬양팀 - 남/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문의: 조학영)



2023년 드림키즈 써머캠프 교사 지원

기간 : 7월 10~28일 (3주간)  
문의 : 정지혜 집사 (jeehye518@gmail.com)

선교위원회 음식 판매

Love Austin Love Southern Africa 선교기금 마련  
메뉴 : 김밥, 캘리포니아롤, 타코야끼 (메뉴는 상황에 따라 변경)  
가격 : \$5 (예약주문 가능)  
문의 : 김송자 집사

한양대학교 신상 QR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금요기도모임  
청년목장  
Good Morning 말씀산책  
토요무릎기도회

주일 1pm  
금 7pm  
주중 또는 예배후  
월-금 6:30am  
토 6:30am

AKPC  
PSALM\_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라이드 팀장 오은비 eunbe.or@gmail.com  
새가족 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

